

하나님의 축복 받는 비밀

디도서1:3

심한결 목사님

* **딤후1:3**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한 저주와 재앙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하셔서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시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너무나 큰 축복인데 한 시대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전도자로 쓰임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리스도와 복음만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복음만을 선포하며 오직 복음만 들을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며 나에게 주신 사명이 발견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드러지는 이 시간 나의 모든 불신앙이 무너지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두고 6일 동안의 삶을 살아갈 영적인 힘을 얻고 살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들어가는 말씀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축복 받는 비밀’이다. 오늘 읽은 디도서는 바울이 디도라는 사람에게 보낸 편지이다. 바울이 디도에게 편지를 보낸 이유가 있다. 바울은 디도와 함께 소아시아 지역에서 사역을 했었다. 그 가운데 그레테 섬이라는 곳에 방문하여 사역했는데, 사역이 끝난 이후에도 그레테 섬의 많은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복음을 듣기를 원했다. 그래서 바울은 제자였던 디도를 그 현장과 지역을 책임질 사람으로 남겨 두었다. 그런데 그레테교회는 아직까지 복음이 깊이 뿌리내리지 못한 상황이었다. 당시 유대주의적인 성격이 강한 많은 이단들 때문에 혼들리는 성도들이 많았다. 그래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묵회하고 있는 디도에게 어떻게 사역을 인도받아 나가야 하는지, 이단의 가르침이 왜 잘못되었는지, 그리고 바른 말씀과 오직 복음만을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편지를 통해 다시 한 번 당부하게 되었다. 디도서의 내용을 보면 윤리적인 생활과 경건의 생활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성도들을 어떻게 지도해야 하는지, 어떤 사람을 지도자로 세울 것인지에 대한 기준도 말씀하고 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답을 발견하기 바란다. 특별한 메시지가 아니라 아마 여러분들이 이미 많이 알고 있는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가장 먼저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영적인 힘을 얻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기 바란다. 그레테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와 어려움은 단순히 성경 속의 옛날이야기가 아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마다, 내가 있는 현장에서 만나게 될 많은 사람들에게도 이러한 문제들이 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매주 인도받았던 것처럼 오직 복음과 오직 말씀을 전달하는 전도자로 서기 바란다.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축복 받는 비밀’이다. 그 답을 먼저 조금 말하면, 바울이 디도에게 부탁했던 것처럼 오직 복음과 바른 말씀을 전하는 것에 나의 삶과 인생의 여정이 있는 것이 최고의 축복받는 길이다.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부분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먼저 부르신 이유가 여기에 들어 있다. 이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축복된 길로 가는 비밀이다. 한 마디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방향은 전도와 선교이다. 우리 각자가 처해 있는 환경은 다르고 현장도 다르다. 지금 하고 있는 업도 다르고 각자 처해 있는 배경과 상황도 다르다. 그러나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은 세계복음화이다. 전도와 선교 속에 우리 인생의 방향이 들어 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을 보면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디도서 1장 3절에는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고 말씀한다. 이번 한 주간 이 사명을 감당하기 바란다. 그리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내가 먼저 준비하고 가져야 할 중요한 부분이 있다.

1. 전도의 이유를 발견해야 한다

그냥 ‘전도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현장을 보면서 왜 전도해야 하는지 그 이유가 먼저 발견되어야 한다.

1)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아야 한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있는 모든 현장과 만남, 스케줄을 통해 만나게 될 사람들의 모습을 오늘 디도서에서 말씀하고 있다. 디도서 1장 10절에는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들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디도서 1장 12절에는 거짓말을 하며 자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 같은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한다. 디도서 1장 15절에는 마음과 양심이 깨끗하지 못하고 더러운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한다. 또 디도서 1장 16절에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행위로서는 부인하는 자들이 있다고 말씀한다. 이 말은 복음을 누리는 삶이 아니라 복음을 지식적으로, 머리로만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다. 이번 한 주간 디도서에서 말씀하는 이러한 현장의 사람들을 만났을 때 정확한 복음으로 답을 전달하기 바란다.

2)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근본문제에서 시작되었다. 이 모든 문제들은 어디에서 시작되었는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창세기 3장의 하나님을 떠난 근본문제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 이 부분을 창세기 3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다. 근본문제가 무엇인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떠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죄라고 이야기한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내가 잘못된 행동과 행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을 성경에서는 원죄라고 이야기한다. 그 결과 모든 사람은 사탄의 손에 장악되어 사탄의 종노릇을 하며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인생을 보면 결국 내가 주인이 되어 있다.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다. ‘나만 잘되면 된다. 내가 행복하면 된다. 내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면 된다.’ 남을 배려하지 않고 나의 행복과 목표만을 향해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모습이다. 창세기 6장 2절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고 말씀한다. 언약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취했다. 결국 눈에 보이는 돈과 물질을 얻는 것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모습이다. 그리고 창세기 11장 4절에는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던니”고 말씀한다. 내 이름을 내기 위한 성공을 중심으로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다. 나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이루어 가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인간은 한계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른 힘이 필요해진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과 마귀의 도움을 받는다.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나오는 미신과 귀신과 우상의 도움을 가지고 자신의 목표를 이루려고 한다. 많은 성공한 사람들이 여기에 빠져 있다. 중요한 것은 불신자들이 다 실패하고 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성공하기도 한다. 그러나 성공한 이후가 문제이다. 어느 날 내 인생을 돌아보니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마귀의 자녀로, 마귀의 종노릇을 하면서 살아왔다는 사실을 보게 된다. 내가 성공하기 위해 열심히 했던 목표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 숭배가 되어 있을 수 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는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고 말씀한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외의 것을 더 중요하게 섬기는 것을 성경에서는 우상숭배라고 말씀한다. 하나님보다 더 앞서는 나의 지식, 나의 사상, 내 행복과 목표도 우상이 될 수 있다. 우상숭배를 계속하다 보면 결국 정신적인 고통 속에 살아가게 된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한다. 정신적인 고통과 함께 육신적인 어려움도 찾아온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나오는 것처럼 과학과 의학이 아무리 발전하더라도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육신적인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누구에게나 한 번은 죽음에 찾아온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을 보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의 지옥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다. 천국과 지옥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존재한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이 땅에서도 지옥과 같은 고통 가운데 살아가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운명 속에 살아가다. 그리고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부분과 문제들이 자녀와 후대에게 전달될 수 있음을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에 말씀하고 있다. 현장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문제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번 한 주간 영적인 눈을 뜨고 사람들이 이런

문제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기 바란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이 근본문제에 대한 답을 이미 가지고 있다. 이 사실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먼저 열릴 때 현장에서 '내가 전도해야겠다'는 전도의 이유가 생기게 된다.

2. 전도의 내용 - 유일한 답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답을 전달해야 하는가? 이 부분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정리되어 있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전달해야 할 전도의 내용, 유일한 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다. 하나님을 떠난 문제에 대한 답이 어디에 있는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복음만이 유일한 길이다.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이 근본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로마서 5장 8절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말씀한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인간의 근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 가지 일을 하셨다.

1) 참 왕이신 그리스도 첫째, 참 왕으로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 자녀들을 영원히 다스려 주시고 사탄의 모든 권세를 완전히 꺾으셨다. 요한일서 3장 8절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이다.

2) 참 제사장인 그리스도 둘째, 참 제사장으로 오셨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원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다. 로마서 8장 2절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고 말씀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셨다.

3) 참 선지자이신 그리스도 셋째, 참 선지자로 오셨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열어 주셨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다.

참 왕으로 사탄의 권세를 꺾으시고, 참 제사장으로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참 선지자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다.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답, 예수 그리스도와 오직 복음만을 현장의 답으로 전달하는 전도자가 되기 바란다.

3. 전도를 위한 준비

마지막 세 번째는 전도를 위한 준비이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이 사명, 이 일을 두고 우리가 반드시 준비해야 할 중요한 부분이 있다. 내가 전도를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전도는 내 열심과 내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을 보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내심과 능력으로 하여"라고 말씀한다. 전도는 내 열심과 노력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내 노력과 열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도와 선교의 일을 하나님께서 내가 있는 현장에서 하실 수 있도록 나를 준비하면 된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는 "이 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고 말씀한다. 하나님은 지금도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가고 계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지금도 이루어 가시는 그 역사 속에 나의 삶과 나의 인생의 여정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나를 준비해야 한다. 그러면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다른 것이 아니다. 한 가지만 준비하면 된다. 영적인 힘을 먼저 얻는 것이다. 내가 영적인 힘을 얻으면 그 힘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된다. 내가 힘을 얻으면 그 증거가 현장의 많은 불신자들에게 보여질 만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게 된다. 램턴트 일곱 명도 이런 응답을 누렸다. 그렇다면 이번 한 주간 영적인 힘을 얻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다른 것이 아니라 집중이다.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가? 디모데전서 4장 5절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고 말씀한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일에 조금만 집중하면 된다.

1) 아침에는 말씀과 기도로 시작해야 한다. 누구에게나 하루의 시간이 있다. 살아 있다면 아침에 눈을 뜨는 시간이 누구에게나 있다. 눈을 떴을 때 조금만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로 시작하기 바란다.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않아도 된다. 눈을 떴을 때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확인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 응답으로 하루를 시작하기 바란다. 그 응답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면 굉장한 힘이 생긴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피곤과 어려움, 불평과 불만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영적인 힘을 가지고 시작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있는 현장은 너무 힘들고 어렵다. 우리 중직자들의 현장도 마찬가지이다. 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반복되는 현장에 우리 중직자들이 있다. 그 현장에서 무엇이 필요한가? 영적인 힘이 필요하다. 우리는 그 힘을 회복해야 한다.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도록 집중해야 한다.

2) 낮에는 모든 스케줄 속에서 하나님께 질문해야 한다. 낮에는 내가 해야 할 일을 다 제쳐두고 다른 것을 하라는 것이 아니다. 평안하게 내가 가진 스케줄 속에서 질문하면 된다. 질문하는 자체가 기도이다. 무엇을 하나님께 질문해야 하는가? 오늘 내게 있는 문제와 어려움, 순간순간 찾아오는 갈등과 많은 사건을 두고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는지 질문하는 것이다. "하나님, 왜 이 일을 허락하셨습니까?", "이 문제를 통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답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된다.

3) 밤에는 말씀으로 하루의 답을 확인해야 한다.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해야 할 일이 있다. 오늘 하루 동안 있었던 많은 일들을 놓고 오늘 내게 주셨던 말씀을 가지고 답을 찾아보는 것이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것이다. 오늘 있었던 만남과 문제와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말씀을 통해 다시 확인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집중해야 할 세 가지 중요한 내용이다. 한번 이 부분을 가지고 시작해 보기 바란다. 우리 모든 전도자들이 영적인 힘을 얻어야 한다. 이 힘을 내가 조금만 가지게 될 때 내가 있는 모든 현장에서 내가 억지로 다락방과 전도와 선교의 문을 열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어 가시는 전도와 선교의 응답이 내 삶 속에 오게 되어 있다. 빌립보서 1장 6절은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고 말씀한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 13절에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라고 말씀한다. 내가 영적인 힘을 얻게 될 때 내가 있는 모든 현장에서 전도의 사명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다.

결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비밀이 있다. 그 비밀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속에 내 삶이 있으면 된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라고 말씀한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생명이 살아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답을 얻어서 생명을 얻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신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고 말씀한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전도와 선교의 응답 속에 있기 바란다.

이 일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영적인 힘, 이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된다. 영적인 힘만 얻으면 된다. 영적인 힘을 내가 얻게 되면 하나님이 일하시게 되어 있다. 이 일을 위해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고, 내일도 오직 복음과 말씀만을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된다. 이 일에 집중하는 모든 전도자가 되기 바란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축복 받는 비밀 속에서 모든 현장을 살리는 귀한 응답을 누리기 바란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모든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가는 모든 전도자들을 통해 현장에 성취되어지는 응답을 누리게 하시며, 그 응답을 가지고 생명 살리는 응답 누리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사명인 전도와 선교를 내가 해야만 하는 이유가 하나의 메시지가 아닌 한 주간 현장과 만남을 통해 보게 하시며,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이 내 인생의 유일한 답이 되며 오직 복음으로만 결론 나는 축복 누리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 오직 복음에만 오직하기를 원합니다. 이 응답을 위해서 아침, 낮, 밤 집중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먼저 얻게 하옵소서. 모든 현장을 살리는 응답이 누리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